

“외국인 유학생 관리 소상공인 대책 절실”

도의회, 의장단·상임위원장단 긴급 간담회서

전북도의회(의장 송성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 관리와 고사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송성환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은 9일 의정실에서 도 집행부로부터 긴급 추경예산 편성 방향과 코로나19 대응 및 추진현황을 보고 받

았다.

의장단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9일부터 입국 예정인 865명의 외국인 유학생 관리에 온 힘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대구·경북에서 도내 소재 대학이나 자사고 등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고등학생의 현황을 파악, 그에 따른 대응 체계 구축도 필요하

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경제활동과 생산·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는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만큼 지역경제 위축에 따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재적소에 재정을 투입하는 선제적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번 긴급 추경은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비·간접지원을 위한 예산안이지만 빠른 시일 내에 2차 추경 재원을 마련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성환 의장은 “긴급 추가경정 예산안의 신속 집행으로 경제안정 도모와 방역 대책 지원사업에 신속히 집행되기를 바란다”면서 “아울러 외국인 유학생 관리와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이번 긴급 추경 예산안 심사시 관계 공무원의 회의 참석을 최소화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도청 실·국·원 소속 직원은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할 것을 요청했다. /김정희 기자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은 9일 의정실에서 도 집행부로부터 긴급 추경예산 편성 방향과 코로나19 대응 및 추진현황을 보고 받았다.

임정엽 무소속 출마... 배경은 ‘당대당’ 아닌 ‘인물론’

공약은 인구 감소 방지에 초점

임정엽 완주무주진안장수 국회의원의 예비후보가 2대 총선에서 무소속 출마를 지난 5일 공식 선언했다.

중앙값 있는 임 예비후보의 이번 승부수로 전북지역 총선 지형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현재 도내 무소속 출마를 공식적으로 밝힌 후보군은 임정엽 후보를 포함해 전주 최형재, 군산 김관영, 남원 임실순창 이용호 등 총 4명이다.

임 예비후보가 무소속 출마라는 초강수를 둔 이유는 이번 선거를 민주당과 민생당이라는 ‘당대당’이 아닌 ‘인물론’으로 유권자에게 심판을 받겠다



는 굳은 의지로 임혀진다.

지방선거는 지역에 뿌리내린 인물이, 국회의원 선거는 정당을 안고 가는 것이 선거에 유리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지난 2006년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분열한 상태에서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7명의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바 있다.

그럼에도 임 예비후보가 당적을 포기하면서까지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배경엔 완주군이 고향인데다 당

시 2차례나 민주당 공천으로 완주군수에 당선돼 로컬푸드 열풍을 대한민국의 불개 했던 업무추진력을 갖고 있다.

그의 대표공약을 보면 ‘출산부터 대학까지 국가 부양론’과 ‘지방 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을 전면에 내세웠다.

모두 인구 감소 방지와 유입에 초점을 맞췄다.

교육 분야에선 ▲농촌지역 학생 학비를 전액 국비 지원, ▲출산·육아수당 확대, ▲공공 출산·산후조리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공공 키즈카페 등 설치, ▲공립 유치원과 24시간 어린이집 확대를 약속했다. /특별취재반

‘윤준병 후보 사퇴 요구’에 민주 정읍고창지역위 여성위원장 “정면 반박”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지역위 여성위원장 용화숙씨는 여성위원회의 이름으로 전주의 한 커피숍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준병 정읍고창 예비후보의 배우자가 여성위원들을 상대로 갑질과 폭언을 하고 문제가 되자 사과를 했음에도 다시 여성위원들이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하는 등 기만행위를 반복했다”는 주장을 폈다.

이어 “윤 예비후보는 중대한 선거법 위반혐의로 선관위에 고발된 후보이면서, 갑질과 폭언을 일삼아 하는 배우자를 둔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것이 부끄럽다”면서 “출중한 능력을 가진 새로운 후보를 간택해 달라”고 중앙당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정읍고창지역위원회 이선덕 여성위원장이 입장문을 내고 용씨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해당 기자회견의 당사자 용화숙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여성위원회 위원장이 아닌 정읍지역여성위원장이며, 용화숙 위원장의 주장 역시 정읍지역여성위원회 전체 의견이 아닌 용 위원장을 포함한 2~3명의 의견임을 밝혀준다”고 말했다.

다.

이 위원장은 “당시 여성 당직자와의 이야기 중 견해의 차이로 약간의 언성이 높아진 것을 두고 막말과 갑질을 일삼았다는 표현은 너무 과장된 주장이며, 여성위원회 전체가 그렇게 인정하는 듯이 회견을 한 것은 지난 1년여를 같이한 동지들에게 뽕물을 뒤집어 씌우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위원회의 명의를 실추시키고 사실을 왜곡한 용화숙 위원장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겠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반

4·15 총선 예비후보자 이모저모

윤준병 “예향 자긍심 구현”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예비후보(정읍·고창)가 여섯 번째 공약으로 정읍과 고창에서 예방·의향으로서의 자긍심이 구현되도록 문화·예술·교육·체육을 진작시키겠다”고 말했다.

윤 예비후보는 정읍과 고창의 예·의향 자긍심 고취는 ▲정읍·고창 전통문화 유산의 보존 및 가치 제고 ▲의향으로서의 독립운동정신 고취 및 현충시설 관리 강화 ▲인구감소에 따른 교육환경변화에 대응 강화 등을 통해 이루겠다고 제시했다. /특별취재반



경선 탈락 박희승, 재심 신청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예비후보(남원·임실·순창)는 경선 탈락에 불복하고 재심을 신청했다.

박 후보에 따르면 당의 공정하고 정의를 지킬 수 없는 경선의 과정으로 주민들로부터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결과가 되었다며, 이번 경선이 상대 후보인 이강래 후보를 편들고 자신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지역 언론이 앞장서 허위사실을 무차별적으로 유포하고, 투명하지 못한 여론조사 진행과 표 등 공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특별취재반



이용호 “무소속 완주할 것”

이용호 국회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은 9일 그동안 4.15총선 거취와 관련해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왔고 무엇이 지역과 국가에 이로운 것인지 고심해왔던 것에 대해 언론을 통해 심경을 밝혔다.

이 의원은 최종적으로 무소속으로 선거를 완주하기로 결정했다며, 그 어떤 정치지형의 변화와 상관없이 무소속으로 당당하게 지역주민의 선택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취재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제21대 총선 후보자 합동 기자회견이 열린 9일, 민주당 전북도당 대회의실에서 후보자들이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병도 익산을, 이상직 전주를, 이원택 김제·부안, 윤준병 정읍·고창, 신영대 군산, 안호영 완주·진안·무주·장수, 이강래 남원·임실·순창, 김윤덕 전주갑, 김수홍 익산갑, 김성주 전주병 후보)

“총선 승리로 보답”... 후보들 ‘결의 다짐’

민주 전북도당, 경선 마친 후보자들과 합동 회견 23일 도당 선대위 출범·전북 7대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전북지역 10곳, 전석을 차지하겠습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치열한 경선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후보자 전원이 한 자리에 모여 총선에서 전석을 확보하겠다고 다짐했다.

후보자 10명이 모였다.

안호영 예비후보는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여당의 후보들로 코로나19 재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면서 “전라북도를 감염병 대응과 방역 안전지대로 만드는데 함께 하고 전북도당 선대위에 코로나대책 추진단을 만들어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앞장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총선 전북도민의 엄한 회초리를 맞고 깊은 반성과 노력의 시간을 보냈다”며 “이번 21대 총선 승리를 통해 14개 시군의 전성시대, 전북 성공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9일 민주당 전북도당에 도당위원장이자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 후보인 안호영 예비후보를 비롯해 김윤덕(전주갑), 이상직(전주을), 김성주(전주병), 신영대(군산), 김수홍(익산갑), 한병도(익산을), 윤준병(정읍·고창), 이강래(남원·임실·순창), 이원택(김제·부안)

이날 전북도당은 3월 23일 도당선대위를 출범, 전북도 전체를 위한 7대 공약을 발표한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전북도 최대 사안인 탄소 산업 육성을 위한 탄소법 개정안, 남원 공공의대법, 제3금융중심지 등과 관련해 중앙당과 충실히 협의하고, 20대 국회에서 어렵다면 21대를 통해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후보자들은 “문재인정부와 전북도가 코로나19 재난을 허무맹랑하게 도전 여러분의 일상이 회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재차 약속하고 “도민 여러분의 안전과 민생, 성공을 위해 한발 더 뛰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되겠다”고 입을 모았다. /특별취재반

상패·트로피제작 전문업체

명품종합상사

TOTAL ADVERTISING WORLD

김한경

광고사업부
트로피 / 상패 / 명패
실사현수막 / 각종깃발
팸플릿 / 리플릿 / 각종인쇄

판촉사업부
기념품 / 판촉용품
단체복 / 기념타올

전주시 완산구 문화광장로23 신화빌딩 1층
사무실 : 063-232-2323
063-251-4664
F A X : 063-286-4665
Mobile : 010-3656-8657
E-mail : mpct2323@hanmail.net

www.mp2323.com